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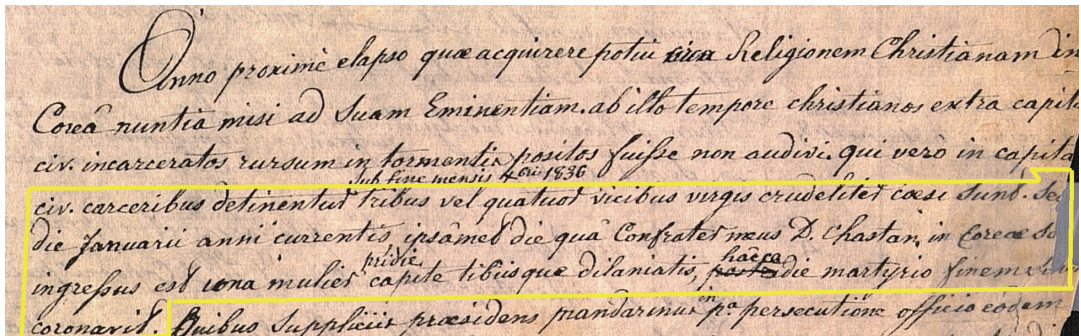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1837년 1월 옥중 순교자 김 아가타 (2)-2

- 김아기 아가타 성인의 자매[언니]인 김 아가타에 대한 새로운 기록 소개 -

(저번 호에 이어)

모방 신부 서한을 통해 1837년 1월 샤스탕 신부가 입국했을 당시 서울 포도청 옥에서 순교한 김 아가타가 1839년 5월 24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한 김아기[관찬사료에 金阿只로 나옴] 아가타 성인의 자매임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해일기』와 페레올 주교의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이하 ‘순교자 행적’으로 약칭을 샤스탕·모방 신부 서한과 비교해 보면, 김 아가타가 옥중에서 순교할 때까지 자신의 자매[누이동생]인 김아기[1836년 음력 9월에 체포됨] 등 다른 신자들과 함께 포도청 옥에 갇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옥에서 대세(代洗)를 받았던 김아기가 세례명을 ‘아가타’로 정한 것도 옥살이를 같이 하다가 먼저 순교한 언니의 세례명을 따라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1] 모방 신부가 1837년 11월 26일에 포교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60, f.119]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이하 ‘다블뤼 비망기’로 약칭에서는 김 아가타를 ‘현사궁(顯思宮) 각시(宮녀)’라고 했는데, 이는 김 아가타가 조선 23대왕 순조(純祖)의 생모인 수빈(綏嬪) 박씨의 사당인 현사궁(나중에 경우궁(景祐宮)으로 불림)에 속한 궁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김 아가타에 대해 샤스탕 신부는 1837년 9월 12일 서한에서는 궁녀로 살다가 천주교를 믿기 위해 궁에서 빠져나온 ‘동정녀’라고 했다가 9월 15일 서한에서는 열심한 ‘과부’라고 서로 다른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모방 신부 서한에서도 나타납니다. 모방 신부의 1837년 11월 26경 서한에서는 ‘과부’라고 했는데, 1839년 8~9월 서한[박해 보고서]에서는 ‘동정녀’라고 했습니다.

김 아가타가 궁에서 나온 뒤에도 동정녀로 살았는지 아니면 혼인했다가 과부가 되었는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다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궁녀 출신 여성 신자들이 혼인하지 않고 동정 생활을 계속했다는 사실[1839년 김아기와 같은 날 참수 순교한 박희순 루치아가 대표적임]을 볼 때 김 아가타도 동정녀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주교가 금지되고 탄압받던 시기에 동정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어 그 자신과 신앙공동체에 위협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쪽찢 머리를 하여 결혼한 여성 또는 과부라고 말하는 동정녀들[복자 정순매 바르바라와 윤점혜 아가타가 대표적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김 아가타가 ‘과부’라고 자칭하면서 동정 생활을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블뤼 주교의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f.72)[번역본 113쪽]에는 김아기가 과부이며 ‘궁궐의 여종’이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김아기가 궁궐의 여종이었다는 기록은 위의 약전에서만 확인됩니다. 이 기록이 맞다면 그의 언니인 김 아가타가 궁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연고로 김아기가 궁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아가타가 순교했을 당시 나이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동생인 김아기보다 몇 살 위였을 것입니다. 1839년 김아기가 순교했을 때 나이가 기록마다 다르지만[50세, 53세, 54세] 대략 김 아가타가 50대 중반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아가타의 옥중 순교 날짜 - 1837년 1월 2일 또는 1월 15일

필자는 지난 『상고우서』 64호에서 샤페탕 신부 서한, 모방 신부 서한, 다블뤼 비망기,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이하 ‘달레 교회사’로 약칭]에 각각 다르게 나오는 김 아가타의 순교일을 비교·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방 신부 서한 전체를 검토하고 샤페탕 신부 서한도 다시 확인한 결과 김 아가타의 순교일에 대한 추론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샤페탕·모방 신부 서한과 새로 확인한 모방 신부 서한에서 공통되는 점은 김 아가타가 사망한 날짜가 곧 샤페탕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샤페탕 신부는 1837년 9월 12일 서한에서는 서울에 도착한 후 옥중에 갇힌 신자들이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어서 1월 1일에 궁녀 출신 동정녀[김 아가타]가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즉 9월 12일 서한에서는 샤페탕 신부의 입국일과 김 아가타의 순교일이 동일한 지는 명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9월 15일 서한에서 샤페탕 신부는 분명하게 자신이 입국한 날인 1월 2일에 ‘열심한 과부’가 옥사했다고 적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 서한에서 ‘동정녀’와 ‘과부’로 다르게 나오지만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샤페탕 신부의 서한에서는 김 아가타의 순교일이 1월 1일 또는 1월 2일로 나오지만, 앞선 서한의 1월 1일을 뒤의 서한에서 1월 2일로 수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확인한 모방 신부의 1837년 11월 26일 서한에서는 샤페탕 신부의 입국일=김 아가타의 순교일이 1월 2일로 나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11월 26일경 서한에서는 날짜는 나오지 않고 샤페탕 신부가 입국한 날에 ‘아가타’라는 과부가 순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방 신부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1839년 8~9월 서한[‘기해박해’ 보고서]에서는 샤페탕 신부가 ‘의주’로 입국한 날에 순교한 동정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모방 신부는 샤페탕 신부가 의주로 입국한 날에 김 아가타가 옥중 순교했고, 그 날짜는 1월 2일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고우서』 64호에도 언급한 모방 신부의 ‘1837년 말 서한’[11월 17일경 서한으로 새로 추정했

임에서는 샤스탕 신부 입국일=김 아가타 순교일이 1월 26일로 나옵니다. 당시에 필자는 샤스탕 신부의 서한을 근거로 “모방 신부가 날짜를 착각해서 ‘1일’(또는 2일)을 ‘26일’로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번에 서한들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모방 신부가 샤스탕 신부의 입국일을 1월 2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월 17일경 서한에 나오는 ‘26일’은 ‘2일’의 오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모방 신부가 11월 17일경 서한에는 뭔가 착각해서 ‘1월 26일’로 적었지만 11월 26일 서한에는 ‘1월 2일’로 제대로 기록했다고 보입니다.

달레 신부 역시 샤스탕 신부의 입국일과 김 아가타의 순교일이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1월 15일을 샤스탕 신부의 ‘입국일’로 본 것은 중국과의 국경을 넘어 조선에 들어온 날짜가 아니라 서울에 도착한 날짜라고 보아야 말이 됩니다. 즉, 달레 신부가 김 아가타의 순교일을 기록할 때 다블뤼 비망기의 기록을 참조하여 샤스탕 신부 입국일=서울 도착일인 1월 15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블뤼 비망기에는 ‘샤스탕 신부의 입국’ 날짜가 나와 있지 않으며 ‘김 아가타의 사망일’과 동일하다는 명시적 기록도 없습니다. 따라서 1월 15일을 샤스탕 신부의 입국일=김 아가타의 순교일로 본 것은 어디까지나 달레 신부의 ‘견해’일 뿐이고 자료상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상교우서』 64호에서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달레 신부가 샤스탕 신부와 모방 신부의 서한을 인용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이나 관련 근거 제시 없이 원문의 순교일을 모두 1월 15일로 고쳤기 때문에 독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달레 신부의 날짜 비정(샤스탕 신부 입국일=서울 도착일인 1월 15일)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새롭게 모방 신부 서한을 검토하면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교우서』 64호[48쪽 각주17번]에서 필자는 모방 신부의 11월 17일경 서한에 나온 ‘1월 26일’이 “1월 1일(또는 2일)의 착오가 아니라 1월 15일(또는 16일)의 착오일 가능성도 있다. 즉 모방 신부도 샤스탕 신부의 입국 일을 서울 도착일이라고 생각했는데 1월 16일을 1월 26일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확인한 모방 신부 서한에서 샤스탕 신부 입국일이 국경을 넘어 의주로 들어온 날인 1월 2일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필자의 추론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달레 신부의 추론과는 별개로 다블뤼 비망기(f.357)에는 ‘1837년 1월 15일, 음력 1836년 12월 9일 수도(서울)에서 사망한 김 아가타, 현사궁 각시의 생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내용에 채워 넣기 위한 메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더 없습니다. 다블뤼 주교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음력 날짜까지 명시한 순교일을 필자가 오류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샤스탕·모방 신부의 서한과는 다른 자료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김 아가타의 순교일은 1월 2일(샤스탕 신부와 모방 신부의 서한) 또는 15일(다블뤼 비망기)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알려진 자료와 새롭게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1837년 1월 옥중 순교자 김 아가타 [궁녀 출신]와 1839년 5월 24일 참수 순교자 김아기 아가타 성인이 자매였다는 사실과 김 아가타의 순교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기존 자료의 재해석은 한국천주교의 역사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기존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연구를 진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방 신부의 라틴어 서한 : 신학생 서약서(1)

이번 호부터는 기해박해 순교성인 성 모방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이후에 작성한 라틴어 서한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입국 이후의 첫 번째 라틴어 서한인 25번(1836.4.4)과 추신 격인 26번(1836.4.6)은 아직 정본·역주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서한은 29번(1836.12.3)의 추신 격인 30번 서한(1836.12.2), ‘신학생 서약서’입니다. 이미 4년 전 『상교우서』 58호(2018년 봄)에 원본, 정본, 번역을 소개하였지만, 2021년에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새로운 편집본이 나왔기 때문에 이 편집본을 반영하여 정본 작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한은 모방 신부가 신학생으로 선발한 최방제, 최양업, 김대건이 조선 천주교회의 장상에게 순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답과 신학생들의 성·세례명, 출신지, 최방제의 경우에는 부모의 성·세례명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헌입니다. 파괴외방전교회 고문서고 1260번 문서 99쪽인 원본이 남아있으며, 보관 상태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편찬된 이 서한의 편집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한국교회사연구소(1996),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42쪽.

②지정환·최승룡(2006), 『Monsieur Maubant Lettres de 1832 à 1839』, 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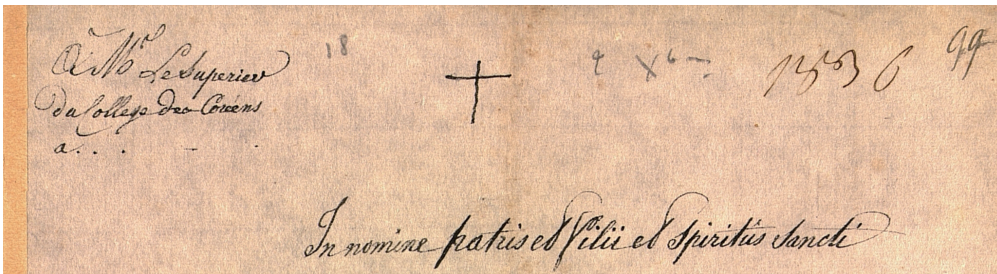
(2003년에 나온 첫 편집본에는 이 서한의 본문 판독이 빠져있습니다.)

③수원교회사연구소(2018), 『상교우서』 58, 37~38쪽.

④한국교회사연구소(2021),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①의 개정판, 64, 66쪽.

가장 최근에 간행된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개정판에 모방 신부의 서한 3통과 함께 추신 격인 이 서한이 실려있기 때문에,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할 『모방 신부 서한』의 30번 서한이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실린 서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뒤로 미뤄두고, 기존 편집본들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먼저 지적해 보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모방 신부가 1836년 12월 2일에 ‘조선 신학교 교장’에게 작성한 서한(신학생 서약서, 부분)

정혜정 마리아(연구원)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III’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